



신한은행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며, 2022년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리브트'를 실천하고 있다. 신한은행 KT 혁신점포(왼쪽)와 홈플러스와 협업한 '신한은행 골드바 초콜릿' 사진제공 | 신한은행·홈플러스

# '이색점포'부터 '시나몬'까지... 혁신의 신한은행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KT플라자에서 다양한 은행 업무 미래 채널 구현 '혁신 점포' 선배 메타버스 혁신성 인정 CES 전시 금융 상담 등 고객 편의성 대폭 ↑

신한은행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참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은행'을 콘셉트로 한 2022년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리브트(RE:Boot·새출발)'를 실천하고 있다.

### ●통신·유통과 협업한 오프라인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협업 시스템이 눈에 띈다. 9일 금융과 통신 융합의 일환으로 KT플라자 서안양점, 의정부점 등 '신한은행 KT 혁신점포'를 열었다. KT플라자 내에 신한은행 디지털 데스크를 설치해 고객이 직원과 화상상담을

로 대출, 예·적금, 전자금융 등의 금융 상담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또 통장, 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실물 거래가 가능한 고기능 스마트 키오스크도 설치해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이번 혁신점포는 신한은행 금융서비스와 KT 통신서비스의 결합으로 미래 채널 모습을 구현했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혁신점포 방문으로 신한은행의 사업자대출 등 금융상담서비스와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유선전화, 인터넷, CCTV 등으로 구성된 '사장님 성공팩' 등 KT의 통신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향후 KT플라자와 신한은행 영업점 연계 오프라인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채널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홈플러스와 협업한 한정판 상품 '신한은행 골드바 초콜릿'도 인기다. 신한은행 로고와 서체를 적용한 케이스에 골드바 모양의 초콜릿 3개와 즉석복권을 담아 재미와 호기심을

더했다. 즉석복권을 통해 순도 99.99%의 신한은행 골드바 10g 등 푸짐한 경품을 준다.

회사 측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 지인에게 달콤한 초콜릿과 복권의 행운까지 함께 선물해 재밌는 추억을 드리고자 기획했다"며 "향후 금융을 넘어 고객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주목'

온라인에서는 11월 30일 공식 오픈한 자체구축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확장·연결해 만든 가상공간으로, 고객에게 새롭고 재밌는 경험과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금융Zone, 건강Zone, 아트Zone, 스포츠Zone, 스토어 등으로 구성했다. 혁신성을 인정받아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 핀테크 부문 전시에서 단독 부스를 배정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시나몬에서는 화상상담서비스도 가

능해 예·적금, 투자상품, 퇴직연금, 개인대출 등 금융 상품에 대한 상담과 모바일 서식을 통한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녹취 분석 등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또 화상상담 분야를 확장해 부동산과 세무 등 전문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전문가 화상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나몬 론칭 기념으로 내년 2월 10일까지 랭킹 이벤트, 쿠폰 교환 이벤트, 쿠폰북 완성 이벤트 등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회사 측은 "최근 오프라인 영업점이 점차 줄어드는 금융 환경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은행을 만날 수 있도록 화상상담서비스를 확대한 것은 금융소외계층 포용의 일환"이라며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넘어 현실로 연결되는 시나몬 콘텐츠를 통해, 고객이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금융

스포츠동아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15



이인섭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왼쪽)와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 사진제공 | 상상인

## 상상인저축은행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NHN클라우드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상상인저축은행이 최근 NHN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상인저축은행 데이터 서비스·업무 자동화 시스템 등에 NHN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금융 분야 특화 클라우드 전환 지원, 성장을 위한 양사 간 협업 강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정밀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리 예측 모델 등 디지털 금융 기술력을 한층 고도화한다. 또 정보 보안성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예방 등 고객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도울 방침이다.

이인섭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는 "NHN클라우드와의 협력으로 데이터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기반 체질개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더 나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 삼성카드-가관광청 '차별화된 여행경험 제공'

삼성카드가 최근 캐나다관광청과 데이터 및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자 체결한 중장기적 파트너십이다. 삼성카드는 자사의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인 'LINK 파트너'를 활용해 회원 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리서치를 실행하고, 캐나다 방문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발굴하는 등 빅데이터 마케팅을 수행한다. 또 시즌별 데이터 분석을 지속 실행해 캐나다를 사계절 프리미엄 여행지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협업도 진행한다.

파트너십 체결 기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삼성카드 여행'에서 행사 여행사의 캐나다 패키지 상품을 삼성카드 결제 시 최대 7만 원 할인과 2%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회사 측은 "삼성카드의 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유용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27일(화)		
서울 0/10	인천 0/10	춘천 0/20	강릉 0/20	대전 0/20	전주 0/20
-8 2	-8 1	-11 2	-1 8	-7 4	-6 4
광주 20/20	대구 0/0	부산 0/0	-5 4	-5 6	0 10
창원 0/0	제주 30/20	지역	-2 7	5 9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79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가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 전기차 기부...나눔 앞장 선 하나금융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10대 전달 연말 이웃돕기 성금 150억원 쾌척

하나금융이 26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전기차량 10대를 기부했다.

하나금융의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이 10월 서울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ESG 모빌리티 에코플러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모

빌리티에 기반한 환경·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 관내에 노후된 경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차량 이용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전기차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15톤 상당의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손해보험은 차량은행이 적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 한인자동차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친환경 전기차 기부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하나금융

하는 신개념 자동차보험인 '하나에코플러스 자동차보험'을 선보이는 등 생활 속에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ESG 모빌리티 에코플러스 지원사업은 환경과 사회 모두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최근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관에서 열린 '희망 2023 나눔페어' 전달식에서 연말 이웃돕기 성금 150억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지역사회의 문제 신속지원, 위기가장 긴급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27일(화) 음력: 12월 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다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이나 투자 분야에 있어서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만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피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뚜렷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하라.	몸과 마음이 굳어지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기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학업,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오늘은 검살일이다. 욕심이 많은 날이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시시한 일들로 인해 휘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에 불확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지나친 야망과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긴 안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물론 뻔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하라.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밀바닥은 흐려다 위 일수록 맑듯이 사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부부싸움을 조심해야겠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전한 생활을 찾아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를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학업,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하여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동이 따른다.